

호남석유화학, 출자효과 언제쯤?

상장기업 타법인 출자규모 증가 ... 화학산업 신규출자 두드러져

2003년 들어 타법인에 출자한 상장법인 수와 출자건수는 감소했으나 총 출자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03년 7월25일까지 타법인 출자를 공시한 법인은 77개로 2002년 같은 기간 105개사보다 26.7% 줄었으며, 출자건수도 2002년 146건에서 2003년 129건으로 11.6% 감소했다.

2003년 현재까지 총 출자액은 6조6288억원으로 2002년 6조267억원보다 10.0% 증가했고, 1개 기업 평균 출자액도 2002년 574억원에서 2003년 860억9000만원으로 50.0% 증가했다.

반면, 출자지분을 처분한 법인은 60개사(88건)로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2% 줄었고, 처분액도 2002년 2조7373억원에서 2003년 1조8964억원으로 30.7% 감소했다.

금융부문의 출자액이 2002년 607억6900만원에서 2003년 3조4245억900만원으로 5535.3%나 증가했으며, 자동차부품·제조판매 부문은 2003년 10건, 9211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학, 건설, 서비스, 철강부문의 신규출자도 두드러져 화학업종은 모두 6건, 7628억1900만원의 출자가 이루어졌다.

타법인 출자규모 상위 기업에는 신한금융지주(3조3701억3500만원/1건)와 현대자동차(6490억원/1건)가 1-2위에 올랐다.

호남석유화학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대석유화학에 대거 출자하면서 2003년 들어 총 3000억원(1건)을 출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LG화학 3000억원(1건), 금강고려화학 2801억2700만원(5건), 금호산업 1583억9900만원(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타법인출자금액 상위기업

(단위: 건, 100만원)

구 분	출자건수	출자금액	등락률	KOSPI등락률대비
신한금융지주회사	1	3,370,135	24.90	13.90
현대자동차	1	649,000	19.40	8.40
호남석유화학	1	300,000	84.80	73.80
LG화학	1	300,000	9.50	▽1.50
금강고려화학	5	280,127	▽5.20	▽16.20
조흥은행	2	247,708	▽10.40	▽21.40
K T	2	200,000	▽14.20	▽25.20
금호산업	3	158,399	14.70	3.70
현대모비스	1	137,987	44.70	33.70
한국외환은행	1	115,806	▽5.70	▽16.70

출자지분 처분금액으로는 현대자동차 4625억원(1건), SK글로벌 4299억7000만원(9건), POSCO 1972억8000만원(1건), 울촌화학 1230억8200만원(1건), 한화 1119억4600만원(1건), 쌍용양회 890억원(1건), 대상 515억100만원(1건) 등의 순이었다.

증권거래소는 시중은행들의 합병과 기업들의 사업다각화, 투자수익 목적 증으로 타법인 출자는 증가한 반면,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출자지분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4>